

혈액 투석 환자에서 고혈압의 이환율과 치료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이연경 · 조민석 · 마성권 · 김수완 · 김남호 · 최기철

목적 : 만성적으로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에서는 고혈압은 더 흔한 질환이며 이환율은 72% 로 더 높다. 또한 해년마다 사망률은 23%로 높은 편이다. 이환율, 이용된 약물, 그리고 이 환자들에서 고혈압의 조절과의 관계에 대한 보고는 부족한 편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혈액 투석을 하고 있는 환자에서 환자의 고혈압에 대한 이환율, 치료, 조절 정도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방법 : 전남대 병원에서 혈액 투석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2004년 1월 현재 투석기간이 1년 이상된 혈액 투석환자 1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비교적 안정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 최근 3개월이내에 입원한 경력이 있거나 감염, 암을 동반한 환자는 제외하였다. 투석후 혈압을 기준으로 6차례 혈압을 평균하여 혈압이 140/90 mmHg 이상이거나 항고혈압제를 복용중인 환자는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분류 하였다. 말기 신부전 환자에서 체액과다 외에 다른 혈압관련 인자들과 기타 영양상태 및 생화학적 지표등을 알아보기 위해 모든 대상환자에서 사용한 고혈압제의 종류별 가짓수와 투석전 혈청 알부민, 혈중 요소 질소, 혈장청 크레아티닌, 헤모글로빈, 헤마토그리트, 칼륨, 인, 칼슘, 지질검사를 시행하였고 또한 투석 적절도 (Kt/V), 크레아티닌 청소율 (Ccr), 체질량지수(BMI)를 조사하였다.

결과 : 혈액 투석중인 환자의 평균 나이는 55.10±13.03세, 당뇨환자는 49명 (43%), 남녀비는 1대 1.1이였으며 평균 투석 기간은 4.34±3.09년, 그리고 조혈인자 (erythropoietin) 사용중인 환자는 92명 (80.7%)이였다. 혈액 투석 환자의 수축기, 확장기 혈압은 148.70±22.02, 83.13±9.53 mmHg이고 맥압은 65.57±17.30 mm Hg이였다. 고혈압 95명 (83.3%)이였으며, 이중 12명 (10.5%)은 약물 치료를 하지 않고 있었으며 33명 (28.9%)만이 투석후 혈압이 140/90 mmHg 이하로 조절되고 있었다. 고혈압으로 약물 투여 중인 환자는 평균 2.16±1.32개의 약물을 투여 받고 있었으며 약물의 갯수와 혈압조절과는 의미있는 상관 관계가 없었다. 사용된 항고혈압제 중 칼슘 통로 차단제 (calcium channel blocker)는 55.8% 환자에서 사용중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었으며, angiotensin II receptor 차단제를 사용중인 환자는 37명 (38.9%)으로 혈압조절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p=0.034). 그 이외의 다른 약물은 혈압 조절과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혈액 투석 모두에서 알부민, 혈중 요소 질소, 크레아티닌, 헤모글로빈, 헤마토그리트, 지질등 혈청학적 검사 결과 모두는 고혈압과 통계적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혈액 투석 환자 중 고혈압은 나이가 많을수록 (p=0.020), 조혈 인자 (erythropoietin) (p=0.033)을 사용하는 환자에서 유의하게 많았고 혈압의 조절은 여러 인자들과 큰 연관관계는 보이지 않았다.

결론 : 만성 혈액 투석중인 환자들 중 많은 환자들이 부적절한 혈압 조절을 보이고 있다. 만성 투석 환자의 혈압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약물 사용, 견체중 도달, 저염식, 운동 등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혈압조절을 하여야겠다.